

# 광주 은행권 주택대출 5개월째 증가

### 미분양 아파트 감소·낮은 대출금리 영향...전국 16개월만에 최대폭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낮은 대출금리 영향으로 은행권의 주택대출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광주지역 은행권 가계대출(주택대출)액은 3조8464억원으로 전달보다 117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465억원, 6월 220억원, 7월 550억원, 8월 372억원으로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서구 염주동·화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 매출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신축기를 앞둔 방학 이사수요까지 더해지면 가계대출(주택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은행 주택대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9월 1조3880억원, 10월 1조4190억원, 11월 1조44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도는 은행권 가계대출액이 지난

2월 1조4206억원, 5월 1조4543억원, 9월 1조4653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국의 경우 은행권 주택대출이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월 2조7000억원에서 11월 4조1000억원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이중 8월에 3000억원 감소했던 주택담보대출은 9월 1조7000억원, 10월 2조2000억원, 11월 2조9000억원으로 3개월째 증가했고 그 규모도 확대됐다.

11월의 경우 작년 7월(3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급자리론과 은행 대출제도의 양도분까지 포함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5000억원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반면 전국은 정부가 지난 9월 2일 부동산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이후 주택 거래가 일부 늘어난 것만으로도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업체가 만든 우수 제품 구경으세요”

8일 오전 광주시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열린 '제4회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 개관식에 이창환 대표이사, 초청한 총괄임원 등 백화점 임원을 비롯해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 정순남 전남도 정무부시장, 임충식 광주중소기업청장, 윤명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장 등이 참석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19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개 상품을 선보였다. /나명주기자 mjna@

#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주 바꾸고 우회입점?

### 신용회복위 소액대출 1000억원 돌파

### '상철리제코리아'서 'STS 도시개발'로...대책위 강력 반발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한 건축주가 바뀌면서 대기업이 우회 입점 절차에 돌입한 것이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북구 대형마트·SSM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지난 6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주가 '상철리제코리아'(대표 이상동)에서 'STS 도시개발'(대표 김현석)로 북구청에 변경신고됐다"며 "상철리제코리아가 허가권을 얻고 건축과 운영과 정에서 주체가 바뀌는 대기업 우회 입점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

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STS 도시개발'은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부동산 산개발업체로 대형마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 상업시설 전문 시행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춘천과 전주 등에서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STS 도시개발'은 대기업과의 이면계약 여부를 밝히고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이 어디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를 과탄내는 대형마트 건립을 자진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상철리제코리아는 지난 2월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북구청의 불허로 행정소송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현재 입점 예정지 인근 고려중·고측은 상철리제코리아가 소소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북구의회는 광주시의 조례 제정에 근거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마트 건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지원되는 소액대출이 지난달 말 기준 10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신용회복위는 2006년 11월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채무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소액대출을 받은 신용회복지원자는 지난월까지 4년간 총 3만3611명에 이른다.

연간 소액대출 실적은 ▲2008년 4488명 ▲2009년 1만2257명 ▲올해는 11월 말까지 1만5681명 등으로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편의점서 잘 팔리는 소주·맥주

### 올 주류 판매 급증... '바나나 우유' 4년연속 1위

올해 웨비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편의점 업계 히트상품의 순위에서도 대거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상품 중 올해 편의점의 매출 1위는 '바나나맛 우유'로, 2007년 이후 4년 연속 편의점의 최대 효자상품 자리를 유지했다.

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월 첫째주까지 주요 편의점들의 상품별 매출은 부동의 1위 바나나맛 우유 이외에 캔커피레시비와 스낵 츄러스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2.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매출 순위 상승 품목으로는 단연 '술이 끊긴다' 소주와 맥주 등이 올해 2010 남미 아공 월드컵, 아시아게임 등 대형 스포츠경기 분위기에 힘입어 10위권 대거 포진한 것이다. 특히 소

주의 경우 낮은 알코올 도수 선호 추세에 따라 웨비마트에서 '참이슬 후레쉬'는 지난해 매출 순위 8위에서 4위로 급등 뛰어올랐다. 참이슬은 4위 자리를 내주고 7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10위권에 포진했고, 카스 캔(500ml)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위 자리를 지켜 매출 상위 10위권에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카스 캔 등 술 종류가 3개나 포진한 것이다.

GS25에서도 참이슬(360ml)과 참이슬 후레쉬(360ml)가 각각 매출 순위 5.6위를 차지했고, 카스 캔(355ml)도 10위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 10년 넘은 중고 소형차 보험료 낮아진다

###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 가량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초부터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500cc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정비수

가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를 체계도 손질된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책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미리 정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증가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로 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또 교통사고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건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만성적인 사업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비 집행액을 예상사업비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가 건강보험 수가(건보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진료 등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자보수가를 건보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漁家 즐기고 판매액 낮고 전남 어업 어찌나

국내 최대의 어류 양식 지역인 전남의 어가(漁家)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해상가두리와 축제식 양식어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전국 대비 판매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어류양식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전남지역 어류양식 어가는 연평균 4.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2005년 1388가구에서 2006년

1401가구로 반짝 늘었다가 2007년 1288가구, 2008년 1200가구, 2009년 1134가구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어류양식 업종별로는 연평균 1억 3300만마리로 전국 업종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가두리 양식 방법이 많아 조피볼락이 4500만마리, 넙치 3600만마리, 전갱이 2700만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출하량은 2만4837t으로

넙치 1만5337t, 조피볼락 7115t, 감성돔 654t, 농어 519t 등의 순이며 전국 출하량의 26%를 차지했다.

어류 양식 시설 방법별로 보면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해 어류를 그물망 등에 가두어 기르는 '해상가두리 양식'은 2005년 1069가구, 2006년 1070가구, 2007년 980가구, 2008년 919가구, 2009년 872가구 등 경제성 없는 소형양식장 폐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연안지역의 해안선 일부 또는 육

지부에 독을 쌓아 바닷물로 어류를 기르는 '축제식 양식'은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매년 12.3%가 감소했으며 경제성이 낮고 2006년 이후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악화 때문에 2005년 43가구에서 17가구로 대폭 줄었다.

이밖에 연평균 어류양식 판매금액은 평균 상승률 7.9%에 2389억원으로 전국의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 어가별 판매금액은 2005년 1억5000만원에서 2009년 2억3000만원으로 매년 13.2%씩 증가해 전국 증가율 14.7%보다 1.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홍스페이스 상무점 오픈**

**엔틱-100% ITALY 다기능 좌탁**

**엔틱-100% ITALY 다기능 식탁**

**클래식-100% ITALY**

**세미모던-100% ITALY 사또닥스**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062-382-0022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SINCE 1990

식사전 **독소무** 1봉씩!

“**배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된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 섭취후, 99.9% 몸의 변화 직접확인 가능!

장(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오늘날 장(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장(腸)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을 지탱하고, 특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간만 드셔보면 "속" 편안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변이 속!! 가소도 속!! 요즘 '독소무' 덕분에 살 맛 납니다. 흔히 잘먹고, 잘자고, 잘자면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설세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즘 매일먹는 삼성제약 '독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막힘없이 후련할 줄이야! '독소무' 먹길 정말 잘했네!

삼성제약 독소무(장(腸)기능성 제품으로 식약청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살기답, 개스명수, 우황청심원으로 알려진 삼성제약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독소무'는 우리몸에 유익한 이눌린, 현미호분추출물(미강 등 49종류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인체시험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5일만에 끝낸다” 효과 없으면 환불 해드립니다.

삼성제약 '독소무'는 심여를 기울여 연구개발한 고급제품으로 5일간만 드셔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직접 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효과 보장으로 5일간만 드셔 보시고 효과가 없거나 불만족시 당일 즉시 100%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보증서 발급, 택배비 회수 부담)

제품문의 : 1577-2326 (본사)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독소무**